

사자친구와의
만남

나는 미래의 유권자!



4월9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래저래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공천이다 뭐다 해서 신경 싸움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총선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쏟아내는 음악 소리에 동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지난 27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총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휴일이던 지난달 30일 목포역 앞에서 총선 유세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후보의 낭랑한 연설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멋진 연설에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 사이에 '미래

의 유권자' 꼬마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딱 하니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개구쟁이 녀석들은 누구보다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따라 소리도 지르고 팔도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뭔가 신나는 행사로 보였나 봅니다.

'4월 9일'을 쉬는 날, 나들이 가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죠? '미래의 유권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럼 없이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명주기자 mjna@

I love MY student



박 지 영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힘이 약해지고 지금 당장에 자신이 없고 마음이 답답할 때 내게 힘을 주는 성경말씀이다. 타고난 '천성'이라는 말로 항상 일축했던 나의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 덕분에 대학생할 내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소양을 기르는 것보다 '진정 내가 교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내 안의 갈등으로 다가왔었다.
시간이 흘러 교사가 된 내가 처음으로 부담한 학

곳이 세차한다고 점심시간에 물을 떠다가 세차해주는 일까지 있었다.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마음은 고맙지만, 남는 시간에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선생님은 더욱 기뻐했다고 해서 그 일은 정리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었지만, 한 가지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은 학업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본분은 교사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아이들이 적어도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혼자 설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중에 각자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업에 주력했다.

특히, 방과 후에는 부모님 허락 하에 늦게까지 남아서 복습하고 과제나 꼭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은 몇 번이고 확인한 다음에야 돌려 보내곤 했다. 습관처럼 공부나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도 심지어 밖이 깜깜해질 때까지 같이 교실에 남아서 하디보니까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성실히 해오는 것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

학습에 흥미가 없고 힘들어했던 민오가 학년말

교사! 그 첫 설렘

교는 전남 영광에 있는 한 작은 초등학교. 흥농읍에서도 꼬불꼬불 길을 한참 가다보면 황금 들녘 옆으로 작고 아담한 학교 교정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학교였다.

교장으로 배정받았지만, 학교 형편상 3·4학년 복식수업이 힘든 관계로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4학년 아이들과의 첫 대면의 시간. 8명의 새까만 눈동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가슴은 두렵고 떨리며 뛰기 시작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만 살던 내가 학교 사택에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은 새롭기만 했고, 자연을 벗 삼아 자란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꽃과 나무, 벌레 등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서 도리어 내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입장이 되었다.

아이들 모두 농사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인지 청소도 잘 하고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일도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심지어 내 차를 깨

에 많은 향상을 보여주어 더욱 기뻐던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틈틈이 야외수업도 했고, 가까운 저수지로 체험학습을 가서 줄낚시도 하고 사택에서 아이들과 간식도 먹으며 비밀 이야기도 하는 등의 많은 추억도 만들어 갔다.

지금도 그때의 아이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설렌다. 장난꾸러기지만 마음 약한 편인지, 소극적이지만 착한 민오, 운동을 좋아한 승룡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예쁜 진영이, 아무진 희경이, 애교만점 주미, 공주님 지원이, 왕가닥이지만 의리와 명인이. 내 교사로서의 첫 설렘을 안겨준 주인공들! 너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선생님이었다는 것, 혹시 너희가 비록 선생님을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나에게 다시금 초심을 항상 잊지 않게 만들어 주고, 교사로 있는 그 언제까지나 나에게 설렘을 안겨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할게, 고마워...

(담양 만덕초교 교사)

광주바둑협회

영구생 리그전

흑 최악의 결과 후수 빅 10보(135~150)

白 강지수 (문성중 2) 黑 임지성 5단 (동일전자공고 2)

백 △ 두방의 급습에 백돌을 공격해 보려던 흑 돌들이 오히려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얼핏 보기에는 이리저리 찢리는 데가 있어서 백이 현 세계주로 호랑이를 잡으려 드는게 아닌가 싶었으나 주변의 백이 워낙 견고해 흑이 움직일수록 백 돌들이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흑을 옥죄고 있다.
임지성군은 괴로운 신음을 토해내며 흑 137까지 나간 다음 139로 끊었으나 백이 140으로 조이고 보니 중앙 백을 잡겠다는 꿈은 훨훨 날아가고 이제는 겨우 빅을 바라보는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후수중 139로는 140에 하나 나가

는 것이 다소 이득이다.
흑 141을 안두면 백이 '가'로 몰아서 흑 한점이 잡히므로 이 수는 절대 점이다.
그래서 142는 백의 차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흑 한점을 잡으면서 수를 조이게 되어서는 너무나 깨끗한 결말이다.
흑 145까지 이 점전의 결과는 백의 선수 빅, 흑의 입장에서 비긴 것만 해도 불만인데 후수까지 잡아 최악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강지수군은 만족한 표정으로 146으로 달려 정리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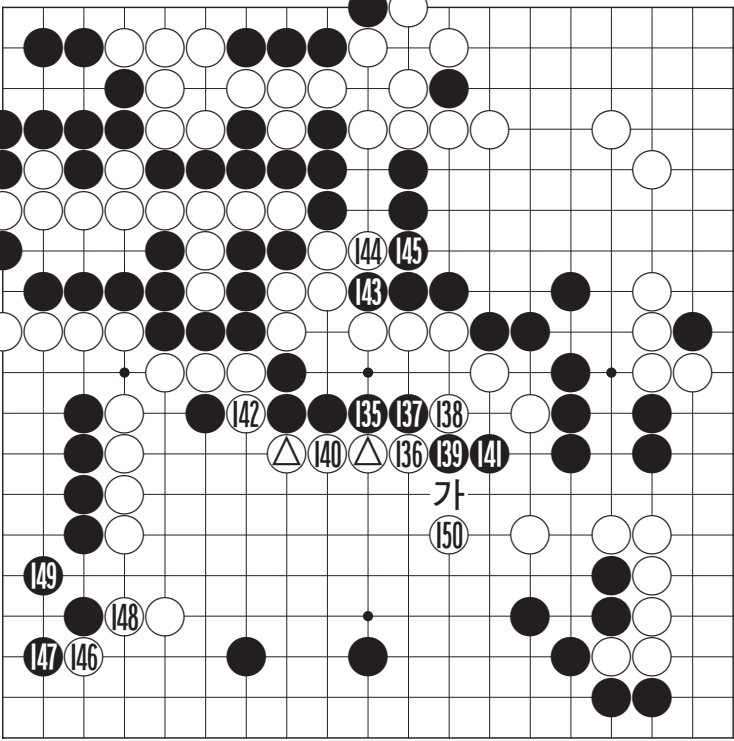
조경호, SK가스배 첫 승 신고

조경호 초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결전 B조 리그에서 김대희 3단을 121수만에 불계로 꺾고 첫 승을 신고했다. 이로써 조경호는 리그 1승1패를 기록했다.

조경호의 승리로 '죽음의 조'인 B조는 더욱 안개 정국이 됐다. B조에는 조경호를 비롯해 신인원 김기용 4단, 한상훈 3단, 박승화 2단 등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예 기사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A·B 조 1위를 차지한 두 기사가 3번기로 우승을 가리며 우승 상금은 1천만원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29>

How long will it take to build the arena?

실내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 : They're going to build an arena in Fort street.
B : How long will it take to build the arena?
A : I think it will take about three years.
B : That's pretty fast if you think about it.

A : 아마 포트 거리에 실내 운동장을 세울 거예요.
B : 실내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 : 제 생각에는, 약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B : 상당히 빠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arena : 실내 경기장
* 그 가게에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How long will it take to go to the store?
* 그 일을 마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How long will it take to finish the assignment?
* 당신의 집에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your house?

오하오우 니혼고 <1129>

流(なが)して稼(かせ)いだお金なんだぞ

맘 흘려서 번 돈이야!

A : お父(とう)さん5000円ちょうだい。
B : こいつ この前(まえ)小遣(こづか)いやったばかりじゃないか。
A : もうなくなったの。
B : お父さんが汗(あせ)を流(なが)して稼(かせ)いだお金なんだぞ。その價值(かち)がわからないのか。情(なさ)けないな。

A : 아버지, 5천엔 주세요.
B : 이 녀석! 요전에 용돈 준 지 얼마 안되었잖아?
A : 벌써 다 떨어졌어요.
B : 아버지가 맘 흘려서 번 돈이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한심하구나.

* ちょうだい : 주세요, 주십시오
* こいつ : 이 놈, 이 녀석
* 小遣(こづか)い : 용돈

니하오 쑹구위 <106>

你画什么呢?

너는 무엇을 그리고 있니?

A : 你画什么呢?
nǐ huà shénme ne
니 화를 신메니?
B : 我画一只小羊。
wǒ huà yì zhī xiǎoyáng
악 화(화) 일 지 쉼야양
A : 小羊做什么呢?
xiǎoyáng zuò shénme ne
쉼야양 작을 신메니?
B : 小羊在草地上吃草。
xiǎoyáng zài cǎodìshàng chīcǎo
쉼야양 작을 지옥땅상 초치양

A : 너는 무엇을 그리고 있었니?
B : 한 양(양) 양을 그려.
A : 양은 무엇을 하고 있는대?
B : 양은 초원을 사 풀을 먹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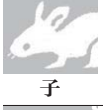
리빙 센스

키가 커보이는 코드법

의상을 코드하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이미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 ① 시선을 상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옷이나 프린트가 강한 옷을 선택합니다.
- ② 헐렁하게 있으면 키가 작아보이므로 상의를 타이트하게 입습니다. 바지도 폭이 넓은 것보다는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 ③ 스커트는 여중간한 길이 보다는 짧게 입는 게 좋습니다.
- ④ 부츠는 폭이 넓지 않고 스트레이트 형을 선택합니다.
- ⑤ 하의와 신발의 색이 비슷하도록 코디하고, 스커트도 스타킹 색과 맞춰 주는게 좋습니다.
- ⑥ 액세서리는 가슴 위 부분에 달아주어 시선을 위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⑦ 가방이 너무 크면 키가 작아보입니다. 가방은 작은 것을 매는 게 좋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1일(음 2월 25일 辛未)



36년丙子생 이후는 아버지라라. 48년戊子생 주변사람을 도우면 자연스레 득재한다. 60년庚子생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필히 찾아서 행하라. 72년壬子생 분주한 하루로다. 84년甲子생 옛 일이 고통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1, 25



37년丁丑생 주변이 변화하니 대안을 마련하라. 49년己丑생 직장변동이 있을 수 있다. 61년辛丑생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도우라. 73년癸丑생 천천히 전진하면 큰 발전이 있을 수다. 85년乙丑생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8, 37



38년戊寅생 소망이 이루어지니 준비하고 있으라. 50년庚寅생 출주고 노력하니 마음이 무겁다. 62년壬寅생 나이에 관계지 말고 뜨겁게 진행하라. 74년甲寅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행하니 해가 뜨리니 미리미리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39년己卯생 마음이 편안하니 생각대로 행하라. 51년辛卯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기만 하구나. 63년癸卯생 간결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니 감사하며 지내라. 75년乙卯생 뜻밖의 재난을 만나도 대비하고 있으면 큰 고생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40



40년庚辰생 상대의 고만을 도우면 자신도 편안하다. 52년壬辰생 딸들을 살펴보라 대고가 발생 할 수다. 64년甲辰생 형제적인 일에 집중하라 고민이 커진다. 76년丙辰생 급하게 서두르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니 원만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41년辛巳생 근친자와의 관계는 신중삼일의 심미라라. 53년癸巳생 양보 하면 쉬운 일이 고집으로 인해서 꼬일 수 있다. 65년乙巳생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7년丁巳생 외로운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 38



42년壬午생 새벽녘의 화재가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4년甲午생 허황된 일을 믿을지 마라 망신살이 얹어 있다. 66년丙午생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78년戊午생 억울한 일도 저절로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7, 29



43년癸未생 시비는 무례한 언동에서 발생하니 생각하고 말하라. 55년乙未생 오늘은 편안하다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67년丁未생 마음은 편안하니 가족을 돌보라라. 79년己未생 소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5



44년甲申생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 기쁜 날이다. 56년丙申생 말다툼만 피하면 평화스럽 하루로다. 68년戊申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물린다. 80년庚申생 슬로는 의술하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26



45년乙酉생 어른이 안 보이니 두루두루 살펴보라. 57년丁酉생 숙안은 이르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 69년己酉생 깊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리라. 81년辛酉생 잔치집에 가지만 마음이 무겁다. 행운의 숫자 : 01, 35



46년丙戌생 진행하는 일을 한 번 더 살펴보라. 58년戊戌생 아내를 살펴보라 대고가 있을 수다. 70년庚戌생 아들이 고민하니 고만을 들어보라. 82년壬戌생 활동에 장애가 올 수도 있으니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8, 32



47년丁亥생 의술할 때 차를 주의하면 소화에 그치리라. 59년己亥생 행한 일을 생각해보라 큰 화의 불씨가 보인다. 71년辛亥생 큰 구름은 잡히지 않으니 생각지도 말라라. 83년癸亥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은 더욱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